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2110-4897), 양광석 팀장(4900)

이번주(8.12~14) 올여름 전력수급 최대 위기 전망

- 전력수요 급증으로 대책전 예비력 △306만kW(대책후 180만kW)의 심각한 위기 예상, 윤상직 장관,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동참 호소 -

□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이번주 8.12~14일(월, 화, 수요일)에 **전력수급 최대위기가 예상됨**

○ 지난 금요일(8.9일) 전력수요는 사상 최대인 7,935만kW를 기록하여 전력수요가 공급을 220만kW 초과하면서 수급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순간예비력이 329만kW까지 하락

* 최대수요(대책전) : ('12년 夏) 7,727만kW → ('12년 冬) 7,827만kW

○ 이번주는 수요가 8,050만kW까지 상승하여 대책전 예비력이 △306만kW(대책후 예비력 180만kW)까지 하락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 예상

* 당초 금년여름 최대수요를 7,870만kW로 예측했으나 1달이상 계속된 폭염으로 예상보다 180만kW 상승

< 8월 수급실적 및 전망 > (단위 : 만kW)

구 분	8.5일주	8.12일주					8.19일주	8.26일주
		月	火	水	木	金		
공급능력	7,715	7,744					7,767	7,693
최대전력	7,935	8,050	8,050	8,000	7,350	7,800	7,800	7,560
예비전력	**-220**	**-306**	**-306**	**-256**	**394**	**-56**	**-33**	**133**
(대책후)	**(445)**	**(180)**	**(180)**				**(422)**	**(623)**

□ 이에 따라 정부는 상시 대책만으로는 예비력이 180만kW에 불과한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비상조치수단 260만kW를 모두 시행할 계획(대책 후 예비력 440만kW 확보 목표)

* 상시대책 : 민간자가발전(50만kW), 시운전(5만kW), 절전규제(230만kW), 휴가분산(120만kW), 주간예고(65만kW), 피크요금제(10만kW), 지능형DR(6만kW) 등 상시 대책으로 **486만kW 규모의 예비전력을 확보**하고,

* 비상시 대책 : 전압조정(70만kW), 화력발전 극대출력 운전(40만kW), 긴급절전(150만kW),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가동 · 자율단전 등

○ 수급위기 비상경보가 발령되면 TV속보, 인터넷, 문자 등을 통해 국민들께 **신속히 상황을 전파**하고, 특히, 예비력 200만kW 미만의 "경계"단계 발령시 민방위 사이렌을 송출하여 정전상황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절전을 요청할 계획

□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8.11일(日) 2시 기자회견을 통해 "정부가 최선을 다해 수급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, 위급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"며 "금번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뿐 아니라 **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**"하다면서 全국민의 전기사용 자제를 호소하였음

○ 기자회견에 앞서(12시) 윤장관은 전력유관기관장들과 한전 상황실에서 월, 화, 수요일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수요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음

* 전력거래소, 한국전력, 6개 발전사, 에너지관리공단, 전기안전공사 기관장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양광석 팀장(☎ 2110-490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